

종합

자사고 기숙사 예산 67억 전액 삭감

광주시의회 예결위, 시교육청 추경 심의 대성여고 급식소 23억 지원 놓고 공방도

현직 교육감과 차기 교육감 당선자 사이에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지원 예산이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광주시의회 예결위(위원장 김영우)는 13일 '2010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열고 시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송원고(21억 7950만원)·송덕고(23억 9745만원)·보문고(21억 7950만원) 등 자율형 기숙사 증축비 67억 5600여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애초 소관 상임위원 교육위에서는 50% 삭감안을 수정의결해 예결위에 상정했으나 이날 심의 끝에 전액 삭감됐다. 자율형 사립고 지원 예산이 이처럼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 교육청이 처음부터 무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결위는 이어 교육위 심의안대로 ▲초등학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1억 5700만원) ▲광주공고 급식실 개축 공사(6300만원) ▲첨단교 교사 증축(1억원) ▲전남여성 체육준비탈의실(3000만원) ▲살레시오여고 교사재

배치공사(23억 50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611억여원 규모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중 94억 5107만 4000원이 삭감돼 예비비로 증액된다.

예결위는 다만 대성여고 급식소 예산은 교육위 심의안대로 23억 9300여 만원을 전액 통과시켜 행정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 예산과 대성여고 급식소 지원 문제를 놓고 의원들 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민노당 강은미 의원은 "다른 사립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자율형 사립고 지원 예산은 잘못 편성된 것"이라며 "자사고 신청 당시 해당 재단에서 기숙사를 짓기로 했다가 뒤늦게

교육청이 이를 하기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나"고 지적했다.

반면 입당후 교육위원은 "사학이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해온 역할이나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의견이 맞섬에 따라 예결위 원들의 질의종답 후 1시간여 넘게 계수조정 논의를 거친 후 결국 전액 삭감으로 의결했다.

김영우 예결위원장은 "열악한 시교육청의 건전재정 확립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참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경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어르신 자원봉사 '화이팅' 13일 광주 북구 문흥동 문화의 집에서 열린 '어르신 자원봉사단 리더십학교'에 입학한 북구지역 노인대학연합회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일부학교 법인 특혜 의혹”

조호권 의원 “법인소유 업체가 수의계약 공사 수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호권 의원은 13일 “광주지역 토호 세력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시 교육청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등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추경 예산 심의에서 “이번 추경에 대성여고 급식소 예산을 무려 24억원 지원하고 지난해에는 송원여상 급식소 증축비로 13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통상

급식실 지원 예산으로 2억~3억원만 영한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많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해당 학교법인 소유의 건설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해당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며 “시 교육청이 (이러한 행태를) 비호하고, 로비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전남 전통시장 절반 가스안전시설 취약

행안부 128곳 점검

전남지역 상당수 전통시장의 가스 안전시설이 취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남지역 128개 전통시장에 대한 가스시설 점검을 벌인 결과, 62개 전통시장(상설 23, 정기 39)이 5개 등급 가운데 하위 등급인 'D(개선)', 'E(위험)'등급 판정을 받았다. 특히 62곳 중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 무려 57개(91.9%)에 달하는 등 상당수 시장이 재난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8곳(D등급 1, E등급 7)으로 가스 안전시설 개선도가 가장 취약했고 나주 6곳(E등급), 해남 6곳(E등급), 목포 5곳(D등급 1, E등급 4), 순천 5곳(D등급 1, E등급 4), 영광 5곳(E등급), 영암 3곳(E등급), 함평 3곳(E등급), 완도 3곳(E등급) 등으로 집계됐다.

이외 광양(2), 고흥(2), 화순(2), 무안(2), 장성(2), 장흥(1) 등도 안전시설 점검에서 '위험' 판정을 받았다.

광주의 경우 12개 전통시장이 가스 안전시설 실태 점검에서 D, E 등급을 달하는 등 상당수 시장이 재난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원도급자 무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지자체 첫 ‘공공공사 직불제 조례’ 제정 검토

광주시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공사 직불제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은태 광주시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공사 직불제 조례’를 적극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광주시나 산하 기관이 공공공사를

발주하면서 선급금, 중간대금, 잔금을 결제할 때 원도급자와 상관없이 하도급업체에게도 공사 참여 비율에 의거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시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하도급업체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조례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강운태시장 대상 수상

강은태 광주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예비후보자 공약집(매니페스토 도서) 및 선거공약서 부문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3일 광주시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민선 5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공약서 등 2개 부문을 평가한 결과 강 시장이 창의성, 내용성, 형식성 등 평가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제1, 2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다.

법원 “어등산 개발 협약서 공개하라”

‘시공사 영업상 비밀보다 공익 우선’ 판결

광주 어등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광주시도시공사와 시공회사 간의 협약서를 전면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밝은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이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어등산개발 협약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영업상 비밀보다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이 맺은 협약서 전체를 공개하라고 주문한 첫 판결이어서 유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밝은세상은 지난 2008년 6월 광주시도시공사가 어등산 개발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일체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광주시도시공사는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협약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밝은세상은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부담을 가져 비공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靑 중기비서관에 한미숙씨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 한미숙 씨(취해리트 대표이사 사장)를 내정했다.

한 내정자(47·여)는 한밭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여성벤처협회 부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이노비즈)협회 회장,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을 거쳤다.



전남도 750억 규모 풍력산업 투자유치

한진해운 등 2개사와 협약

전남도가 풍력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는 13일 전남도청에서 (주)한진해운·신라정밀 등 2개 기업과 750억원 규모의 풍력산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진해운은 오는 2023년까지 전남 5GW 풍력프로젝트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분야에 500억원을 투자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향후 발전기 설치용 선박 확보 및 기자재 운송·설치,

해저통신 및 전력케이블 설치 등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라정밀은 신안군 압해도 5GW 풍력프로젝트 설비 전용산단(231만 1000㎡)내 6만 6000㎡ 부지에 250억 원을 투입, 풍력발전기 고정밀 부품인 선화베어링 생산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300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사원 모집

당사는 전복통조림 및 수산물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회사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칠 실 인재를 찾습니다.

식품가공관련 - 간부직

- 자 격 : 식품가공 관련 전문 경력자
- 인 원 : 0명

식품 가공관련 - 연구직

- 자 격 : 식품, 가공 관련 대학 졸업자
- 인 원 : 0명

주 방 - 사 원

- 자 격 : 60세 이하 여성분, 식당 경력자 우대, 공장내에서 숙식가능 하신 분.
- 인 원 : 0명

급 여 - 최고 대우, 상담후 결정

위 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990-1
전화번호 : 061)552-1038 / 010-3587-1836
FAX:061)552-1037

(주)씨푸드완도공장

조선이공대학

2010년 유망신설학과

프랜차이즈 서비스창업교

우리와 특징 5가지

1. 수시1차는 성적에 상관없이 합격가능
2. 연봉 6천만원의 프랜차이즈 점장에 도전
3. 20~30대 장사사업으로 10억 모은 점장 대표 특강
4. 술이아기, 상권분석, 커피파리스타 등 실무중심 수업
5. 네이버카페에 자제한 우리과 소개를 참고하세요

졸업후 직원 ▶ 매니저 ▶ 점장 ▶ 창업까지

학과카페: **NAVER 카페 bxbx**

재학중 5가지 자격취득 (100%)

외식산업관리사 서비스경영관리사 커피파리스타 유통경영관리사 고객서비스수료증

일학의 학과실 (062) 230-8410
cafe.naver.com/bxbx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다들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 일	영 업 시 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 업 시 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